

백년대계 첫 발걸음 미래양양을 밝히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백년대계 첫 발걸음
미래양양을 밝히다

우리군의 미래를 밝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드디어 첫 발걸음을 뗐다.

인재육성이 곧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첩경임을
온 군민과 함께 자축한다.

오색찬란한 역사를 지닌 우리군은
이번 장학재단 출범으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 나갈 것이다.

지 면 안 내

- 2면 우리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정식 출범
- 3면 휴양·레저 겸한 대규모 아웃렛 건립 '탄력'
- 4면 올해 양양송이축제 세부계획 확정
- 5면 양양의 대표 길 소개 '양양 힐링로드' 발간
- 6면 양양 미천골에 국내 최초 나무다리 개통
- 7·8면 "남대천에 황어 맞으러 오세요"

백년대계, 우리군의 미래가 확 바뀝니다

우리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정식 출범

100억 목표 동참 확산...인구늘리기 등 구심점 기대

우리군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난 8일자로 정식 출범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학기금 모금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8일 정상철 군수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을 상임 이사로 선출하는 등 16인의 이사회를 구성한 뒤,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설립인가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은 현재 확보된 기금 26억8,000만원을 기반으로 출연금 90억원과 기부금 10억원 등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군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역주민은 물론 출향인들까지 참여토록 해 이를 원동력

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 인구늘리기와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중 군민들과 출향인들이 매월 1구좌(1만원) 갖기 운동을 전개해 참여율을 극대화하고, 매년 7억원 이상(8년간) 기금을 마련해 2016년까지 50억원, 2020년까지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농협·축협·수협 및 향토기업·출향인기업, 유관기관 등과 장학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장학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은 현재 예치돼 있는 장학기금의 3%인 8,000만원을 내년도 장학금으로 고교생 100만원, 대

학생 200만원씩 52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방과 후 수업 활성화를 비롯해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운영, 특성교육경비 지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지원, 다목적교실 신축, 친환경 무상급식 등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우리군의 인재육성장학사업은 정상철 군수 취임 후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인구늘리기와 지역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결실을 맺게 됐다. 군은 이달 중으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범식을 겸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문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우리군 민원처리 만족도 높아져

각종 민원 17% 증가 불구 처리기간 2배 빨라져

우리군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양양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7% 증가한데 비해 민원처리 기간은 2010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으며, 불가·반려민원도 크게 줄어들어 정상철 군수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위민행정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원접수 현황은 2010년 3만1,409건, 2011년 3만5,990건, 2012년 3만7,6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정 처리기간보다 지연된 민원은 2010년 434건, 2011년 385건, 2012년 60건, 2013년 1건, 불가 및 반려 처리 민원은 2010년 229건, 2011년 189

건, 2012년 118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군은 지난해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안내고시,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강원도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그동안 새울시스템에 의해 접수되는 민원불편신고(생활민원, 상담민원)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여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흡하거나 민원인이 추가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폭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670-2241

우리군 획기적 브랜드 개발

주민공모 실효성 낮아...도시이미지 개선 필요

우리군은 지역 인지도와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획기적인 도시브랜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브랜드 개발에 따라 실시한 공모에서 눈에 띄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양양의 이미지를 최적화로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브랜드 공모에 따른 최종결과 보고회에서 양양으로 방문의향이 있는 계층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지역의 30~40대 전업주부와 40~50대 자영업자를 가진 남성이었으며, 자연경관과 공원레저시설, 휴양 및 숙박시설,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먹거리와 친절, 교통, 쇼핑 등 도시화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동서고속도로 및 공항활성화를 통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만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브랜드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특산물 등 종합적인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올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316건의 제안을 받아 이중 10개안을 선정,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도시브랜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제안된 내용들이 군의 키워드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연말까지 신규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껌법을 통해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151개 농촌 시군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및 매력도 조사결과 우리군의 전반적인 인지도는 84위로 중간 수준이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의 정 소 식

강원발전의원한마음 대제전 양양개최

우리군의회 5월30-31일...188회 임시회 열어



우리군의회는 김일수 의장 주재로 제188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일수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상식과 예측이 통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제12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이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우리군에서 개최된다. 강

원일보사와 강원도의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강원도의회들이 정과와 지역을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약 6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난해 7월 김일수 의장이 당선된 후 처음 참석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47차 월례회의에서 우리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해 지역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전

우리군, 합동 징수단 편성 운영

우리군은 저조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율은 75.3%며 미납액은 15억724만원으로 2011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연중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각 실과소별 올해 연도 분 90% 이상, 지난해 분 30%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실과소별 합동 징수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세무회계과장을 총괄로 세정담당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 월 1회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독촉 납기 2개월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재산조치를 실시하고, 독촉 납기 3개월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및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감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670-2145

정상철 군수 재향군인회장 감사패

정상철 군수가 지난 3월28일 재향군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김명열 강원도재향군인회장은 군수실을 방문해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



회장을 대신해 정상철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안사업 계도에 온다

휴양·레저 겸한 대규모 아웃렛 건립 '탄력'

현남면 지경리 해안에 2017년 개장 목표...호텔·리조트·캠핑장도 조성

우리군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형 아웃렛 건설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군과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LG패션의 지주회사인 LF네트웍스와 현남면 지경리 해안 15만㎡에 460억원을 투자해 휴양·레저, 문화, 쇼핑 기능을 지닌 복합형 아웃렛을 건립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용역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해안 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지경리 아웃렛은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며, LG패션 브랜드 30여

개와 국내 브랜드 70여개가 입점할 것으로 보여 국내 최대 아웃렛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 호텔과 리조트, 캠핑장까지 조성되고 우리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국민여가캠핑장과도 연계할 수 있어 동해안 최대 휴양관광단지로의 도약도 기대된다.

군과 강원도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에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부지 매각 및 임대 등에 협의했으며, 연내 관광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양아웃렛이 개장하면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아 공항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도 큰 도움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확정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유입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양양아웃렛 건설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자 유치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미래전략과 전략사업담당 670-2123

양양국제공항 중국인 탑승객 환영공연

문화복지회관서 도내 문화예술단 출연...다양한 이벤트 개최

강원도와 우리군,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전략에 발맞춰 탑승객 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26일 상하이 노선 탑승객들을 초청,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다채로운 환영공연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정상철 양양군수 등이 직접 참석해 강원도와 우리군을 홍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도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정선아리랑 대합창을 비롯해 강원도립예술단의 한국전통무용 자자골 마을사람들, 속

초갯마당의 사물놀이, 속초시립풍물단 풍물놀이, 상모관 굿 등이 공연돼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에서는 귀빈으로 대접받아야만 가능한 환영행사를 이렇게 한국 강원도와 양양군에서 해주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국과 강원도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됐다"고 고마워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중국 상하이 노선이 첫 취항한 지난 1월 16일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1층 입국장에서 소규모 퓨전 공연을 열어 호평을 받았으며, 3월 13일 화이트데이에는 공항공사 직원들이 나와 탑승객



전원에게 사탕을 나눠줬다.

특히 지난 2월 25일에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 주관으로 낙산해변에서 대규모 K-POP 공연을 개최했다.

한편, 강원도는 연내 국제노선 2~3개 취항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공연으로 인지도 높이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총력전

우리군, 정문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가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5대 과제 정책건의

우리군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해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문헌 국회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상철 군수와 정문헌 국회의원, 김일수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전원, 박천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상반기 시범지 선정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강원항공 설립지원,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실질적인 기능 전환 지원, 양양소방서 인력 정원 승인 지원, 동해북부선(철도) 강릉~양양국제공항간 미연결 구간 우

선 연결 추진 등 5대 과제를 정책적으로 건의하며 정문헌 국회의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색집단지식지구 재정비사업을 비롯해 연어과학관 건립사업, 동산항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등 15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상철 군수는 "정문헌 국회의원의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열정적인 모습에 지역주민들 모두 감명 받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숙



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비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문헌 국회의원은 "매년 3~4월은 국비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므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을 확인한 뒤 양양군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피력했다.

군은 이에 따라 정문헌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 가운데 박상민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실과소장들의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등 공격적인 추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역사·자연 공존 스토리텔링 길 조성해야"

'하조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군부대 이전 등 과제



지속적인 관광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조대를 살리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상철 군수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조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명승지로 지정된 하조대 정자와 애국송의 배경인 등대를 연결하는 하륜과 조준길, 바다조망길 등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스토리텔링 길을 조성해 관광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면적은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일대 13만4,825㎡다.

특히 하조대는 조선 개국공신으로 잘 알려진 하륜과 조준의 역사적 스토리에 더해 앞선 신라시대 때 하랑과 조당의 애절한 사랑도 담겨져 있는 만큼 '사랑의 우국충정 하조대'라는 브랜드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하면,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조대의 획기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명승지 내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해 황토로 포장된 순환 탐방동선을 구축하고 군부대막사는 해맞이 하우스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하조대의 역사적 측면을 강조한 정비방안이 다소 미흡했고, 군부대 이전 관련 세부 추진계획과 비용 산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향후 해결과제로 남았다.

군은 이번 중간보고에서도 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폭 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 후 군부대 이전을 포함한 부족한 국·도비 지원을 요청,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조대 종합정비사업에는 총 26억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23만여명이 찾는 양양 현북면 하조대는 그동안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다, 동해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더욱 침체돼 양양군이 올해부터 하조대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하조대 '희망'들 논란 이원화 대응

우리군, 중광정리 군유지로 대체 주민 의견 수렴
"대법원 최종 판결 받아야"

우리군이 서울시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조대 희망들(장애인재활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이원화 전략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현재 집단시설지구 내에 위치해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한 희망들 부지를 인근인 중광정리 군유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하조대 희망들 대체부지 선정을 놓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배석한 주민설명회를 2차례 진행한데 이어, 지역주민들만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했다.

군은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면 강원도를 통해 서울시에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부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원만한 협의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광정리 대체부지

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큰 하광정리 집단시설지구의 북쪽 방면인 세기연수원 인근으로, 군유지여서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도가 중재를 서고 있는 만큼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건립하려는 장애인수련시설은 숙박시설이 아닌 재활센터로 자연공원법상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상고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서울시의 하조대 희망들이 숙박시설인지, 노유자 시설인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2심까지 하조대 장애인재활센터를 숙박시설 개념으로 보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법원마저 숙박시설로 규정할 경우, 독립공원구역 내 숙박시설 신축 허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670-2725

올해 양양송이축제 세부계획 확정

10월 2~6일 개최...송이콘테스트 등 추가



올해로 17회를 맞는 양양송이축제가 오는 10월 2~6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양송이축제위원회(위원장 김우섭)는 지난달 26일 문화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74개 세부 행사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지난해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양양송이와 사랑애 빠지다'를 주제로 주 무대인 남대천 둔치와 양양전통시장·송이산지·송이벨리 등지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주요 행사로 산신제와 개막식, 축하공연 등 개막행사를 비롯해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인 송이채취현장체험(9월21일~10월10일) 및 송이보물찾기 등 현장체험행사와 문화예술행사,

맛 체험 행사, 상설행사, 거리행사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버섯채취체험, 버섯음식점, 송이추억남기기, 양양인증 샷, 행사장 내 송이보물찾기, 송이기념품 만들기, 거리퍼포먼스 등 기본행사 외에 감기 예방에 좋은 송이 차 시음과 당일 채취된 우량송이를 전시하는 송이콘테스트 등 2개 신규행사가 추가된다.

버섯채취체험은 양양송이벨리에서 진행되며, 현북면 어성전리 탁장사체험, 손양면 동호리 멀치추리기, 서면 송천리 떡마을체험, 낙산배 따기, 양수발전소 탐방 등 이색체험 행사도 마련돼 가을추위를 선사한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양양철광 개발행위 허용기준 완화

우리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로 변경 고시...체계적 개발 가능



올해부터 본격적인 채광에 나서고 있는 양양철광 사업지가 최근 우리군의 관리계획에 따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로 변경되면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리군은 대한광물(주)의 요청에 따라 철광생산지인 서면 장승리 산 15번지 일원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신설)해 고시했다.

군은 지난달 대한광물이 자철생산을 위해 활용중인 강도와 선광장, 야적장, 사무실 등 공업용지와 도로, 침전지 등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 총 13만1,011㎡에 대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고시(양양군고시 2013-37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

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대한광물(주)은 사업지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공작물은 30m까지 시설이 가능해지는 등 허용행위 기준이 크게 완화돼 양양철광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전관리지역에 편입됐던 7만1,890㎡는 선광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허용기준이 크게 제한을 받았으나, 이번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향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조치만 남겨두게 돼 이전보다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광물은 지난 2010년 12월 법인을 설립한 후 2011년 2월 양양철광을 재개광했으며, 지난해는 분광 2만300톤과 괴광 3,300톤, 골재 2,900㎡를 생산했다. 올해는 분광 10만톤과 괴광 4만톤, 골재 10만톤 등 이전보다 3배 이상의 생산을 목표로 채광에 나서고 있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푸른 숲 가꾸기 나무심기

식목일 맞아 현북 장리서 소나무 1천5백본 식재

우리군이 제68회 식목일을 맞아 푸른 숲 가꾸기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군은 지난달 29일 주민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북면 장리 산179번지 일원에서 식목행사를 갖고 1ha에 소나무 1,500본을 식재했다.

특히 오색단풍으로 유명한 서면 오색리에는 4월5일 식목일에 맞춰 단풍나무 400주를 심을 계획이다.

군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위해 사전에 산림농지과에서 현지 하중정리 작업과 식혈작업을 마쳤다. 지난해에는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 총 3,000본의 과실나무를 군민들에게 나눠줬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보호담당 670-2714

제91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양양군과 지역 27개 기관 및 사회단체가 어린이날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즐기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가족 모두가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세요.

• 일시. 2013. 5. 5(일) 10:00 ~ 15:00
• 장소. 양양남대천 송이조각공원
* 우천시 양양군 실내체육관으로 오세요.

특별공연: 팝콘, 솜사탕, 쿠키 등
특별체험: 투로놀이, 공굴리기, 울라후프, 페이스페인팅, 히어로만들기 등 다양한 게임
특별행사: 솟대만들기, 간죽산진, 태평문만들기, 밤잠가시미만들기, 탁본, 119소방안전체험 등
특별공연: 마술공연, 변검공연, 태권도시범 등

【참여단체】
•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사무소 • 무신지역아동센터 • 비전양양21핵심리더2기 • 새마을고양양군지부
• 속초소방서 • 양양군농어인협회 • 양양군보건소 • 양양군자원봉사센터 • 양양군자율방범연합회 • 양양청년회의소
• 어린이집연합회 • 월드체육관 • 자유총연맹양양군지부 어머니포순이봉사단 • 한국미술협회양양군지부 • 한국부인회양양군지회
• 한국시각장애인협회양양군지회 • 홀로섬이한마음우회 •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행사/일정문의 양양군어린이날행사위원회

어린은어를 보호해주세요

○ 매년 5월이면 바다에 아주 어리고 예쁜 은어들이 우리남대천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군 군민모두가 어린은어를 보호해주세요.

- 채포 금지기간 : 5. 1.부터 ~ 5. 30.까지
- 단속구역 : 우리군관내(강원도, 경북)모든하천
- *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법처분)

양양의 대표 길 소개 '양양 힐링로드' 발간

생명·소통·치유 3개 코스 9개 구간 담아
지명유래·인물·들러볼 곳·먹거리 정리



우리 군이 동해안 낭만 가도와 해파랑 길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길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안내책자 '양양 힐링로드'를 발간해 걷기 여행자를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배포한다.

군이 1,700만원을 들여 제작한 '양양 힐링로드'는 해안을 따라 걷는 '생명의 길', 산을 따라 걷는 '소통의 길', 연어의 모천인 남대천을 따라 걷는 '치유의 길' 등 3개 코스 9개 구간을 담고 있다.

'생명의 길'은 현남면 지경공원에서 물치항까지 41km 코스로 소규모 항포구와 해안을 따라 걷는 4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소통의 길'은 주전골과 미천골, 구룡령 옛길, 달래촌과 시루봉을 연결하는 달래길 등 4개 구간

35.5km로 이뤄져 있다. '치유의 길'은 남대천을 따라 연어사업소에서부터 구탄봉과 송이벨리를 순환하는 9km 코스로, 최근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책자는 각 구간마다 코스 미리보기와 함께 지명유래와 인물, 들러볼 곳, 먹거리 등 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대청봉 소재지 오색령의 유래, 국내 4대 명승 길의 하나며 명승 29호로 지정받은 구룡령 옛길과 갈천마을의 유래 등이 토박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고 재미있게 정리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양양성당의 주임사제로 있던 디모테오 이광재 신부가 북한지역 교우들의 남하 길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순교한 유래가 전해져 오는 순례길인 디모테오 숲길과 고려시대 지술가 도선이 아홉 번 올라 아홉 번 감탄했다는 구탄봉 길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어 길을 통해 양양의 숨겨진 역사도 접할 수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도내 최초 양양국악수련원 개원

국악연주단 창단 운영...교육·공연 등 진행



국악수련원이 도내 최초로 지난 2일 양양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정상철 양양군수와 김일수 군의회 의장, 안광혁 한국국악협회 양양지부장,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국악수련원 개원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양양국악수련원은 국악연주단을 창단해 '우리가락, 우리소리를 열다'를 주제로 연중 판소리, 민요,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의 교육을 가질 계획이며, 타 지역과 사물놀이와 농요, 농악, 한국무용 등의 교육교류도 추진한다.

또 설, 한가위, 연말과 현산문화제, 송이·연어축제 때 국악공연을 열고, 사회적 취약 계층과 여성회관, 문화원을 찾아 국악교육

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거주 외국인 대상 국악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해외 전통예술인 초청 문화동반자 사업과 해외 민중음악학자들과 국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악수련원은 청소년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양양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열 계획이다.

양양국악수련원은 한국국악협회 양양지부가 위탁 운영한다.

정상철 군수는 "양양국악수련원이 양양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우리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요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양양전통시장 문화예술공연 두 배로 늘려

오는 4일~10월 29일 40회 진행...유명가수 섭외

올해 양양전통시장의 문화예술 공연이 늘어나는 등 관광시장으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양양시장과 인구시장 등 전통시장 2곳에서 23회의 공연을 진행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 올해는 2억 원을 들여 40회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공연대행업체(아츠플레이)를 선정한다 이어 양양장날인 오는 4일부터 10월29일까지 음악, 댄스, 국악, 퍼포먼스와 체험행사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

이다. 특히 올해는 월 1회 이상 유명가수를 섭외하고, 아카펠라, 마임, 타악, 브라스 등 다채로운 장르와 함께 지역예술가들의 공연도 마련해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신도불이 인증제와 시장 박람회 참가, 상인 워크숍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케이드 시설과 진입로 정비 등 편의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낙산배 1그루 갖기 체험 올해도 '인기'

140가족 참여 지난 20일 '내 배나무 명패달기'

최근 우리지역은 낙산배꽃이 소금을 뿌려 놓은 것처럼 하얗게 만발한 가운데 낙산배 1그루 갖기 체험행사가 도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2년부터 주말농장 형태로 도시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 과원포 배나무를 1주씩 1년간 임대 분양하는 체험행사를 열어 양양 낙산배를 전국에 알리며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과원포에서 140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내 배나무 명패달기' 체험행사가 열려 참가 가족들이 만개한 배꽃 아래서 시원한 봄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이상한파에 4월초 저온과 눈·비 등 흐린 날이 많아 일부 과수 주산지에서 동해파해가 발생하는 등 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은 평년과 비슷

한 기후를 보여 낙산배 작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낙산배 1그루 갖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내 배나무 명패달기, 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 낙산배 재배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

양양 낙산배는 고려 초기부터 재배된 오랜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로 주로 황실리(皇實梨), 청실리(靑實梨) 품종이 임금에게 진상됐는데 매우 맛이 좋아 점차적으로 많은 양을 진상했다고 기록돼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낙산배가 전국 최고의 배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배 재배 농가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 및 과원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담당 670-2369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35. 언덕 오르는 화물차 보며

꺼져라 꺼져라
발 동 꺼져라

그때 자동차가 오늘날 같이 아이이나 Gass가 아닌 즉「木炭車」로 운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약했습니다.

꺼진다 꺼진다
발 발 동
발 발 동 동

고갯길을 오를라치면 자연히 속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꺼졌다 꺼졌다
발 동 동
발 —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름을 보던 아이들은 그렇게 장난끼로 놀러대기를 했습니다.

한 백년도 아닌 그 시절 풍경이었는데 한 오백년도 다 더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떠 오른 듯합니다. 그때는 공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지구온난화」,「녹색운동」에 어떤 시사점 분명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군청 재직 양양고동문화 1천만원 기탁

우리군청 재직 양양고동문화(회장 한덕복)는 지난 11일 회장인 한덕복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 박학원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전현철 의사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1,000만원을 정상철 군수에게 기탁했다.



이재철 전 기획감사실장 2백만원 기탁

이재철 전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19일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정상철 군수를 찾아 장학금 2백만원을 사비로 기탁하고 후배들의 배움에 보탬을 쥐 미담이 되고 있다.



“5대 암 검진 받으세요”

우리군보건소, 출장검진 실시

우리군보건소는 암의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인근 출장 검진기관을 통해 암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보험료부과기준 직장가입자 8만3,000원, 지역가입자 8만7,500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암 검진표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검진종류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 암이다.

대상자는 보건소 검진안내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 검진 문진표, 신분증을 소지하고 검진장소(출장 이동차량)에서 검진을 받거나 인근 암 검진 지정 병·의원에 예약 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특히 올해는 대장암 조기검진과 저조한 대장암 수검률 향상을 위해 50세 이상의 검진대상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면소재 보건기관(지소, 진료소)에 채변통을 배부하고, 채변봉투를 안내문과 함께 동봉해 제공할 계획이다.

암 검진을 받아 암이 발견된 사람, 의료급여 암환자, 폐암환자, 소아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폐암환자는 정액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암환자 42명에 대해 총 5,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2명의 암환자에 1,800여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70-2556

양양 미천골에 국내 최초 나무다리 개통

지난 19일 준공식...대형트럭 2대 지나도 끄떡없고 환경성 뛰어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나무다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양군 서면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탐장 신촌승)에 설치됐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지난 19일 양양 서면 미천골자연휴양림에서 국내 최초로 시공된 나무다리 준공식을 갖고 정식 개통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구조연구팀이 개발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동부지방산림청이 협력해 미천골 제4교량에 설치한 차량용 나무다리는 국산 리기다소 나무 구조용집성재 105㎡로 만든 길이 30m의 2차선(폭 8.7m)으로 고속도로에도 놓을 수 있는 1등급 교량(DB-24)이다. 이 나무다리는 대형트럭 2대 무게인 76.8톤의 하중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안정성이 확보된데다, 친환경 목재를 사용해 자연휴양림의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량통행용 나무다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첫 선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구조연구팀은 지난 2009년부터 자연휴양림의 접근성 개선과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토목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들과 차량용 목조교



량 설계·시공기술을 연구한 끝에 이번에 국내 최초로 나무다리를 성공리에 설치했다.

이번 나무다리 설치로 그동안 진입로의 폭이 좁고, 낙석 위험구간이 많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교행에 불편이 컸던 56번 국도~미천골자연휴양림 제3지구 오토캠핑장 구간의 통행편의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 연장 6.5km의 좁은 도로 폭을 6m로 확장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다리를 일반도로에 놓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만드는 도로교설계기준에 목조교량이 맞도록 힘을 예정이다.

양양동철감 가공시설 설치 확대

농업기술센터, 3개소 지원...농가 신청 받아

우리군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동철감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감 가공 기반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15년까지 재배면적을 500ha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그동안 13억원을 투입해 48 농가에 곱감 건조 시설과 아이스 감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평가에서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아 향후 동철감을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짧은 감에 대해서도 가공 상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2억8,500만원을 투입해 3개소에 반건시, 감말랭이 가공 기반시설

을 시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공시설 확장을 희망하는 기존 가공시설 지원 농가(지역농업 특성화사업)와 생산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선정 농가에 저온저장고와 냉동저장고, 진공 건조기 등 5개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999년부터 동해안 최대 감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감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 628농가(265ha)에서 동철시, 대봉시, 고종시 등 10만 그루 이상을 재배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담당 670-2369

양양 하천 도내 최고로 ‘깨끗’

1년간 수질 검사 결과...양수댐 하류도 회복

최근 양양관내 하천과 석호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군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24개 하천과 3개의 석호에 대해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지표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 측정량이 수질 1등급 기준을 훨씬 넘어 선 것으로 측정됐다.

관내하천은 수질 1등급 기준인 BOD 2mg/l 이하, SS 25mg/l 이하를 크게 웃도는 ‘매우 좋음’ 등급으로 도내 하천 중에서도 수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질이 깨끗한 하천은 오색천(관터)과 후천(황이리 미천골입구 다리), 어성전천(어성전리 어성전교)으로 해당지점에서 채수한 하천수의 경우, 지난해 평균 BOD 0.3mg/l, SS 0.5mg/l 를 기록해 도내에서도 가장 깨끗한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취수공(3개소)이 설치된 남대천 입천리 지점의 수질도 BOD 0.4mg/l, SS 0.6mg/l 로 역시 좋은 수질을 나타냈다.

특히 하천오염원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양수발전소 하부댐 직하류인 서면 공수전리 용소골의 세월교 주변 하천은 BOD 0.6mg/l, SS 1mg/l 로 측정돼 이전보다 크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치천(물치교)은 BOD와 SS 모두 1.1mg/l 를 기록해 양돈농가 이주 후 수질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수질관리를 위해 국가지정 3개소(남대천, 용천교, 포매호)에 대해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12개소와 군 지정 12개소에 대해서는 격월로 수질검사를 벌여 하천오염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670-2180

강현면 어촌종합개발 본격 추진

우리군, 10억 투입 어업생산기반 조성

우리군은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강현면권역의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구로 확정돼 2013년까지 국비 21억원, 군비 9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물치항, 후진항, 낙산항 등 강현면지역 3개 어항에 대한 어업생산기반 시설과 생활환경 및 복지·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실

시설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올해 10억원을 투입, 전진2리 후진항에 아치형 상징조형물 설치를 비롯해 진입교량 개선, 해수인입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물치리에는 물치항 냉동·냉장시설과 120㎡ 규모의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할 예정이다.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담당 670-2740

양양포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증설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 따라 1일 1천2백㎡ 규모로

우리군이 포월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시설증설과 관거정비에 나선다.

군은 제2그린농공단지 신규 조성으로 인해 오폐수 용량이 308㎡ 추가되는데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과 질소처리 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돼야 함에 따라, 기존 포월농공단의 오폐수처리시설을 현재 1일 900㎡에서 1일 1,200㎡ 규모로 증설하고 기타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그린농공단의 기업체 입주 전까지 국비 51억6,2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월 중 완료하고 본격

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1억1,900만원을 들여 스피어테크(제2공장)부터 진양산업 구간(115.2m)의 노후 오폐수 관거와 우수 관거를 9월까지 정비해 폭우 시 우수 역류를 방지하고 유입수의 안정화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월농공단은 현재 식음료품업종 37개 기업체가 입주 완료한 가운데 1일 693㎡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제2그린농공단은 현재 단지 조성 본격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식료품(47.6%), 음료(29.7%), 목재 및 나무제품(22.7%) 제조 등 12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시설담당 670-2196

“남대천에 황어 맞으러 오세요”

양양JCI 5월18~19일 남대천서 ‘황금어축제’

“새봄 황어의 맛을 찾아 양양으로 오세요.”

남대천으로 오르는 황어를 주제로 한 ‘2013황금어축제’가 오는 5월 18~19일 이틀간 열려 짜릿한 손맛과 함께 싱싱한 미각을 전한다.

양양JCI가 주최하는 올해 황금어축제는 이틀간 5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황어 맨손잡기 체험을 비롯해 황어 회 뜨기, 황어요리전문식당 운영, 황어판매 및 포장 등 다양한 황어 이벤트가 준비된다. 또 숯대만들기, 돌

타쌈기, 염색체험, 페이스페인팅, 가족 즉석 포토 존, 음료맥주마시기 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주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군민노래자랑도 열리고, 갯 잡아 올린 싱싱한 황어로 회와 회 무침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양양JCI는 현재 황금어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맨손잡기체험 참가자 접수(033-670-2229)를 받고 있다.

남대천은 봄철 이맘때면 예부

터 ‘물반 황어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황어가 소상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잡히는 황어는 비린내가 전혀 없고 단백하고 씹는 맛이 일품이어서 회와 매운탕,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양양JCI 관계자는 “나른한 5월 양양에 오시면 남대천에서 갯잡은 황어로 맛과 재미를 덩으로 얻어 갈 수 있는 만큼 많이 찾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물치만세운동 재현 애국정신 드높여

3·1절 94주년 맞아·독립선언문 낭독·만세 삼창

양양문화원은 3·1만세운동 94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오전 10시 강현면 물치에서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갖고 그날의 합성을 재현했다.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이 주관하고 강릉보훈지청과 양양군이 후원한 제5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에는 정상철 군수와 애국열사 유족,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민족정신으로 똘똘 뭉쳐 일제에 항거한 물치만세운동을 기렸다.

올해로 50회째를 맞은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식전행사로 양양극단의 물치만세운동 재연

연극이 펼쳐졌으며, 유족대표로 김종명 씨의 독립선언문 낭독, 3일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1919년 양양군 강현면 물치 5일장을 기해 분연히 일어났던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최근의 남북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화합과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속초양양축협 “양양장날은 고기 먹는 날”

9·19·29일 소고기·4·14·24일 돼지고기 할인 판매



최근 한우와 돼지가격의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과 속초양양축협이 한우와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양양장날 특별할인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속초양양축협(조합장 이종울)은 지난 4일부터 양양한우와 돼지고기를 할인판매하는 ‘양양장날 고기 먹는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축협은 하나로마트에서 9·19·29일엔 소고기를, 4·14·24일엔 돼지고기 전 부위를 최대 36%까지 할인 판매한다.

양양한우 암소의 국거리와 불고기(100g)는 기존 2,800원에서 1,000원이 할인된 1,800원(36% 할인)에, 등심·안심·채끝은 7,000원에서 2,200원 할인된 4,800원(31%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목살(100g)의 경우 310원 할인된 990원에, 앞다리 살은 200원 할인된 590원

에 판매한다. 축협은 양양시장(어시장입구)에서 매달 4일에는 돼지고기를, 9일에는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양양관내에는 한우 424농가 5,840두, 돼지 15농가 2만6,831두(순양 양돈단지 2만1,0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격하락과 사료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올해 2억1,300만원을 투입해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용 종자, 볏짚처리비닐 등을 지원하는 한편,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및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에도 1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속초양양축협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양장날 고기 먹는 날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우리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8군단 지원 받아 매월 2회 진행

우리군은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육군 제8군단 법무지원실의 지원을 받아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육군 제8군단 법무지원실은 오는 25일(목요일)과 5월부터는 매월 2회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양군청 제2민원실(세무회계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에는 이재영

2003부대 법무참모, 차동호 2003부대 군판사, 김현환 2003부대 검찰관, 장지웅 2003부대 국선번호 장교 겸 송무배상 장교 등이 나설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양양군 홈페이지 ‘함께하는 양양 무료법률상담’ 창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670-2241

문화재구역 흡연 금지

우리군은 지난 15일부터 관내 문화재 3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군은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이날부터 문화재구역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현재 관내에는 국보 1점과 보물 9점, 사적 2개소, 명승 2개소, 설악산과 백로·왜가리 번식지인 포매리 일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강원도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모두 30개소가 있다.

북한 침투장비 식별 특징 및 신고요령

잠수함(정) 		어군탐지기에 의한 식별 	
잠수함(정) 유사물체 		통신부이 	
수중추진기 		권익침해구급신청 	

해군 제1함대사령부
1st Fleet Command R.O.K.Navy

2013 안보사랑 콘테스트 공모

경찰청에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전국민이 참여하는 '안보사랑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좋은 작품이 공모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모기간 : 2013. 4. 8(월)~5. 27(월)
- ☞ 접수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공모전 홈페이지(www.anbosarang.co.kr)》
- ☞ 입상자 발표 : 2013. 6. 30. 예정
- ☞ 작품주제 : 안보홍보 포스터, 안보사랑 광고영상 등 5개 부문
- ☞ 제출형식 :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 입상작 시상 : 총 상금 2,580만원, 경찰청장 상장 17명

2013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재활을 돕기 위해 2013. 4. 1. ~ 6. 30.(3개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고,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자수 대상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2.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3. 자수자 처리

○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 소견,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

○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라도 치료재활의지 등을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

4. 기타

-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
-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는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
- 자수 전화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전화 : 033-630-4290 속초지청 당직실, 033-630-4356 3호 검사실(마약계)
- 팩스 : 033-632-2267
- 신고 전화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정보수사과)
- 전화 : 122, 033) 680-2559, (담당자 : 조성호 010-9336-4256)

기초질서 위반사범 특별단속 안내



기초질서 실천으로 우리나라 세계최고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연중실시
속초경찰서장

- 경찰에서는 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3.22)과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설치, 배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진 기초질서 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동참합시다.
▶ 단속기간 : 2013. 4 ~ 연중
▶ 단속대상 : 미신고 현수막 게시, 전단지 무단 배포 등
▶ 처벌내용 :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적성검사(갱신)안내』 핸드폰, E-mail로 안내받으세요!

신청대상은...

-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신규 응시자 등

알림서비스 내용은...

-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갱신)기간 도래 시 문자메시지, E-mail 알림
- 운전면허시험 응시접수 시 시험일 안내 문자발송
- 경찰청 행정처분 안내 등

신청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빠른면허서비스" 홈페이지(<http://dls.koroad.or.kr/>)
"적성검사(갱신) 안내 E-mail 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명확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어떤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부양자녀 등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② 총소득요건 : '12년 부부 연간 총소득이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아래 금액 미만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③ 재산 요건 : '12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재산: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적금·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④ 주택 요건 : '12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 단, '13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수급자 ② '12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 ③ '1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음.

2.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을 수 있나?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 ~ 5.31)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인터넷·ARS 전화·휴대전화·모바일웹·우편·방문)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등으로 지급해드립니다.

※ 신청금액은 심과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고,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총당 후 지급

3. 근로장려금!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

□ 근로장려금은 자녀수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홈페이지 참조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최대지급액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5월 7일 지진(지진해일) 훈련하는 날

■ 5월 7일 오후 2시는 지진(지진해일) 훈련의 날입니다.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실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진(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민방위훈련경보에 맞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합니다.

▷ 5월 7일 오후 2시에 재난위험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전국적으로 주민이동 및 교통이 통제됩니다.

재난위험경보(15분) → 재난경계경보(5분) → 경보해제

○ 주민여러분께서는 라디오나 TV의 민방위 훈련 상황방송을 청취하면서,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대피훈련>

- 훈련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책상 밑 등으로 피신후, 사이렌이 그치면 사용하시던 전 기코드를 빼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가까운 대피장소(공터, 학교, 공원)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군·소방·경찰·구급·행정차량 등 비상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우측에 정차 후, 시동을 끄고 대기합니다.

<지진해일 대피훈련>

- 해안가 지진해일대피 훈련지역에서는 훈련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긴급대피장소 또는 3층 이상의 건물 옥상 등 고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긴급대피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철저한 대비만이 위협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의 :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02-2100-5082

중고물품·폐자원 거래를 위한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고물품 및 폐자원의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개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이 손쉽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소(www.re.or.kr/)를 운영하고 있다.
- 순환자원거래소는 간단한 실명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회원은 폐자원 및 중고물품을 수수료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중고물품과 폐자원들이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가입자들의 수익창출도 기대된다.
-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033-240-9534